

주요 소식

선보 성장 전략 워크숍 실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



선보공업 본사 및 선보엔젤파트너스가 함께한 성장 전략 워크숍이 2월 15일 선보엔젤파트너스 센터 부산 본부에서 열렸다. PLUS 2030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선보공업 사업기획부와 연구관리부, 영업2부 담당자 및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최고책임자들과 라이트하우스VC의 고병철 대표, WRS의 장연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본사 연구소의 현재와 미래 중장기 운영 방향'과 '본사와 SAP(선보엔젤파트너스) 콜라보 추진 전략', '추진 전략에 따른 방향 공유'라는 세 개의 섹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 섹션에서는 선보공업 본사 연구소의 그린십, WTS, 국책과제 진행 과정을 주제로 사업기획부 김정욱 상무, 연구소 장호길 이사의 발표를 통하여 정보 및 미래 준비상황을 공유였다. 제2 섹션에서는 최영찬 대표 및 오종훈 대표가 선보 패밀리의 신사업 진행 방향을 발표하였고, 정경현 과장의 발표를 통해 중견기업 신사업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종훈 대표의 하브야드 프로젝트, 고덕수 이사의 NPL 프로젝트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선보엔젤파트너스는 현재 타사와 진행 중인 협업 프로젝트와 기존에 진행하였던 M&A 사업 내용을 선보공업과 공유하는 한편, 선보 패밀리의 신사업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선보공업과 같은 제조 기반 중견기업의 대부분은 새로운 핵심 생산 요소를 빠르게 네트워킹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혁신을 원하지만 외부로부터 혁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진행 중인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 스타트업과의 연결은 선보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6년 선보공업 사업기획부에서 출발한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이달 내 설립 예정인 독일 베를린 지사를 포함하여 총 다섯 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선보엔젤이 투자한 기업이 동남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아시아 네트워크 연결의 중심점 역할을 할 싱가포르 오피스(2018년 12월 설립)처럼, 독일 오피스를 거점으로 유럽 진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최영찬 대표와 오종훈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조선·철강 소재 분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이들을 육성한다. 이외에도 최영찬 대표는 벤처캐피탈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공동대표도 겸하고 있다.

회사 소식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 진행



우리 회사는 황금돼지해를 맞이한 2019년 초,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였다. 이번 채용은 우수 인력 채용을 통해 차세대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주 프로젝트 효율성 개선 및 신성장 동력인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관련 부문의 경쟁 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채용 부문은 가스연료공급장치 및 조선부문 설계 ▲친환경 신사업 및 가스기술연구소 ▲생산관리 ▲품질보증 ▲경영지원 등의 부문이다. 특히 조선설계 파트는 신입사원 위주로 증원할 계획으로, 졸업을 앞둔 예비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특히 희소식이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채용에는 선보엔젤파트너스도 함께하였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올해 싱가포르, 독일을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지주의 전환 및 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채용을 진행하였다. 채용 부문은 ▲투자기획부문 ▲직접사업부문 ▲글로벌 부문이다.

지난 1월 14일 시작된 원서 접수부터 취업자들의 뜨거운 관심 하에 채용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월 25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었고, 29일부터 31일까지의 개별 면접이 진행되었다. 채용 담당자들은 한 사람당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고, 이들 중 최종합격자를 2월 8일 발표하였다.

지난해 ‘World Class 300’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우리 회사는 힘든 경영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채용을 통해 선보 패밀리로 거듭난 신입 및 경력사원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우리 회사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최강 중견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이바지해주기를 기대한다.

교육

사가 교실 운영



지난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 각 공장에서 협력사를 포함한 생산직 사우들을 대상으로 사가(社歌) 교실을 마련하였다. 사가는 회사의 정신적인 지주이며 조직문화를 대표하는 가사를 담은 노래로, 이를 함께 부름으로써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사명감 제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선보공업 사가는 10여 년 전 박현진 작곡가에 의하여 처음 만들어진 후 2015년 입사 1주년 기념 합창단에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불렀고, 2018년 다시 한 번 편곡을 거쳐 지금의 신 버전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회사에서는 사가 교실을 운영하여 구성원들이 사가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사가 교실을 지도한 정일천 강사는 각종 노래자랑 수상 경력이 있는 26년차 가수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사가를 익힐 수 있도록 이끌었다. 직원들은 오전 시간 식당과 교육장 등에 모여 사가를 배우는 한편, 업무에서 잠깐이나 벗어나 신나는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보의 역사와 희망적인 미래가 담긴 사가를 익혀봄으로써 한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이 더욱 돈독해졌기를 바란다.

수상

현대중공업 우수협력사 선정 및 대우조선해양 감사패 수상



우리 회사는 1월 25일 경주현대호텔에서 열린 ‘현통회(현대중공업그룹 통합 협의회)’ 신년회에서 품질우수협력회사로 선정, 표창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는 대우조선해양 글로벌탑 협력회 회장 임기를 마친 최금식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글로벌탑 협력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배관재, 철의장재, 기기 장비 등을 제작·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단의 모임으로, 7개 분과 126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자재산업의 국산화, 품질향상, 기술혁신을 이끄는 한편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동반성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우조선해양 글로벌탑 협력회 신년회 자리에서 감사패를 받고 자문위원으로 추대된 최금식 회장은 앞으로 다양한 행보를 이어나갈 뜻을 전하였다.

모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수 협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이번 표창 수상을 계기로 모기업과의 상생 및 협력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올 한 해에도 대외 협력을 위한 동반 성장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

LNG 연료 추진 260톤급 청항선 FGSS 패키지



우리 회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LNG연료추진 260톤급 청항선(항만청소선, Harbor Clean-up Vessel)의 FGSS(Fuel Gas Supply System) 패키지를 지난 1월 28일 고려조선에 납품하였다. FGSS 토털 패키지는 LN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LNG연료공급시스템 패키지를 말하며, LNG연료탱크, LNG기화기 및 공급 장비, LNG병커링스테이션과 제어시스템을 통합하여 이른다. 해당 건은 선보에서 처음으로 FGSS 토털 패키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LNG연료탱크, LNG병커링스테이션,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업무 진행을 위해 설계 부서는 물론, 연구소, PM, 생산, 품질 부서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수행한 의미 있는 기회였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항만공사의 에코누리호, 일신해운의 50K BC에 이은 국내 세 번째 LNG연료 선박인 동시에,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첫 번째 청항선에 해당한다. 특히 이전 두 건의 프로젝트와는 달리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LNG연료선박 확대를 위해 관공선 위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2019년 발주가 확정된 LNG연료 예인선(2척)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당사 입장에서 LNG연료탱크 제작에서부터 FGSS 토털 패키지를 공급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이후 선보가 FGSS 토털 패키지 공급사로의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특히 2025년까지 정부 주도의 국내 LNG연료추진선 발주가 140여 척(민간: 100척, 관공선: 40척)가량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프로젝트 수행 실적이 향후 국내 LNG연료선박 FGSS 토털 패키지 수주에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최금식 회장을 비롯하여 설계에서부터 생산, 품질, 납품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선보패밀리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본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오는 5월에는 본 프로젝트에 대한 FGSS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어, 마지막까지 완벽한 공사 수행을 통해 선보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이번 납품 성공을 바탕으로 금년 발주가 확정된 해수부주관의 LNG연료 예인선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안전

안전기원제 실시



지난 2월 12일(음력 초하루 전날) 오전 10시 50분을 시작으로 선보패밀리 전 공장은 전사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차례로 실시하였다. 안전기원제는 선보패밀리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매월 초하루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로, 이날 안전기원제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초하루에 열려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공장의 공장장, 생산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HSE 인원은 기해년 한 해 동안에도 선보패밀리 전사의 모든 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재해 속에 일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기원하였다. 최금식 회장은 선보공업(주) 다대1공장에서 열린 안전기원제에 참석하였으며, 다대1공장 직원들에게 올 한 해 절대 다치지 말고 웃으며 일하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안전결의대회를 통해 7대 안전수칙을 선포한 데 이어 각 공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감독자를 임명한 우리 회사는 관리자 특히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무재해 공장 만들기에 애쓰고 있다. 안전한 현장 만들기를 위해 더욱 철저히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한 이번 안전기원제를 계기로, 올 한 해 선보패밀리 모두 안전한 기해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사회 공헌

공장 주변 환경미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선보 가족들이 공장 주변 환경미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급식 회장을 비롯한 선보 패밀리 총 6개 공장의 임직원은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각 공장 주변 및 인접한 인도에 모였다. 각종 쓰레기와 낙엽으로 지저분하여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주변 지역을 청소하기 위해서였다. 줄을 이뒀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어 담은 선보가족들의 부지런한 손놀림에 주변은 금세 깨끗이 정리되었다.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정화작업에 열심히 임한 선보가족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선보공업은 지역의 중소기업으로서 사랑의 연탄 배달, 급식 봉사, 헌혈 등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장 주변 환경미화 작업은 기존의 봉사들과 성격은 다르지만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보가족의 마음만은 가득 담긴 활동이었다. 내 집 앞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회사 앞 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정리함으로써 오가는 지역주민은 물론 선보 가족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선도적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건강

팔꿈치통증, 방치하지 말고 제때 치료해요!

팔꿈치 힘줄에 미세한 파열이 생기면 팔꿈치통증이 나타난다. 팔꿈치는 생소한 듯하여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통증부위이다.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안쪽/바깥쪽)에 따라 질환명이 달라진다.



• **테니스 엘보: 팔꿈치 바깥쪽 통증**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에 돌출되어 있는 뼈와 이어진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되어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명칭에 '테니스'가 붙었지만 실제로는 운동선수보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등 손목을 많이 쓰는 주부나 요리사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며 최근에는 직장인들에게서도 많이 발병한다. 심하면 세수도 하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



• **골프 엘보: 팔꿈치 안쪽 통증**

골프 엘보는 반복적으로 손목을 굽히는 동작을 하다가 손목관절을 굽히는 근육들이 무리한 힘을 받아 힘줄이 파열, 염증이 발생하면서 일어난다. 특히 골프채를 휘둘러 때 팔목을 지나치게 꺾거나 팔꿈치에 과도한 힘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부상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통증 예방을 위해서 힘줄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되도록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증이 발생한 이후에는 전문가를 찾아 진단을 받은 뒤 치료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손상된 힘줄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평소 손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반복하여 테니스엘보 및 골프엘보가 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다. 아래의 스트레칭 방법을 따라하며 평소에 관리하도록 하자.

 스트레칭 예방법

-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목을 굽히고 위, 아래 방향으로 10초 동안 당겨준다.
- 빨래를 잘 때처럼 수건을 반대방향으로 비틀어 10초간 유지한다.
- 적당한 무게의 아령을 든 손을 반대 손으로 받친 뒤 무릎 위에 올린다. 손목을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인다. (10회 반복)

생일을 축하합니다

☑ 본사	박상계(2. 05)	박종혁(2. 07)
	김소연(2. 18)	이대현(2. 18)
	장태린(2. 22)	이유진(2. 23)
	선민규(2. 28)	이경진(2. 28)
	이무호(2. 28)	이영우(2. 28)
	서재욱(음2. 15)	진병석(음2. 15)
☑ 1공장	노재태(2. 01)	이철현(2. 01)
	한승덕(2. 05)	김종만(2. 24)
☑ 2공장	최복식(2. 02)	퐁 투(2. 05)
	유완중(2. 14)	이경화(2. 19)
	권병덕(2. 25)	성기갑(2. 26)
	배승용(음2. 12)	
☑ 3공장	임중화(2. 08)	최광욱(2. 21)
☑ 구평공장	강은지(2. 02)	류시현(2. 02)
	홍기봉(2. 10)	김중학(2. 11)
	나탈리아(2. 11)	김건희(2. 13)
	김남준(2. 13)	김천석(2. 13)
	박현수(2. 14)	손종필(2. 15)
	손판석(2. 16)	박희두(2. 25)
	이성용(2. 27)	조지현(2. 28)
	권태식(음2. 16)	
	권운현(2. 01)	박덕필(2. 01)
	이원삼(2. 02)	이도직(2. 05)
	김영희(2. 07)	정경근(2. 11)
	윤성근(2. 13)	손현숙(2. 15)
☑ 구평1공장	김호선(2. 17)	김태성(2. 19)
	최민수(2. 19)	전형주(2. 20)
	최성욱(2. 20)	구성훈(2. 21)
	김경연(2. 22)	최규환(2. 22)
	정윤환(2. 23)	박상철(2. 25)
	김기욱(2. 26)	김상국(2. 27)
☑ 영암공장	김동선(2. 11)	최석균(2. 13)
	노성담(음2. 23)	

임사 기념일

☑ 본사	김동현(2. 01)	이재무(2. 01)
	이지혜(2. 01)	김영관(2. 15)
	선민규(2. 20)	
☑ 1공장	강현욱(2. 01)	차성오(2. 01)
	이창재(2. 04)	윤희동(2. 21)
☑ 2공장	김종국(2. 29)	
	양수원(2. 22)	유완중(2. 25)
☑ 3공장	이도희(2. 08)	박재용(2. 14)
	강민(2. 19)	권태영(2. 19)
	정남교(2. 27)	제구원(2. 27)
☑ 구평공장	김성주(2. 01)	박관호(2. 01)
	정준영(2. 01)	구춘근(2. 08)
	김술(2. 08)	홍춘관(2. 08)
	김도영(2. 10)	구성민(2. 17)
	반십(2. 19)	이연호(2. 19)
	오상호(2. 24)	
☑ 구평1공장	김정환(2. 01)	박상철(2. 01)
	박진오(2. 01)	진영덕(2. 01)
	홍성오(2. 01)	이경노(2. 05)
	한승목(2. 10)	김대봉(2. 18)
	김도현(2. 20)	박무장(2. 20)
	유인이(2. 20)	김진우(2. 21)
	한윤수(2. 21)	마진경(2. 23)
	이명직(2. 27)	
☑ 영암공장	오세준(2. 07)	이강윤(2. 23)